
‘모과’에 담긴 사랑과 윤리

유준 ·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강사, 문학 평론가

추위를 달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따뜻한 옷을 입거나, 따뜻한 바람을 쐬이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그 방법의 하나로 한 권의 시집 읽기를 권하고자 한다. 추운 게 비단 몸뚱이라면 전자의 방법이 낫겠지만,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심지어 삶 자체가 으스스 떨려 온다면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할 시집에 대한 독서 역시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손택수의 근작 시집 《나무의 수사학》(서울: 실천문화사, 2010)에는 요즘과 같은 쌀쌀한 철에 읽기 좋은 시들이 꽤 여러 편 실려 있다. 그의 시에서는 따스함이 전해져 온다. 그러나 이 따스함은 세속의 무풍지대 속에 놓인 온실 속의 그것이 아니라 춥고 바람 부는 황량한 들판을 정직하게 건너고 있는 자가 품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있던 모과를 주워왔다
울겨울엔 모과차를 마시리라,
잠화꿈에 절여 꿀룩이는 겨울을 다스려보리라
도마에 올려놓고 쥘 모과를 쪼개는데
잘 익은 속살 속에서

애벌레가 꾸물거리며 기어나온다
 모과 속살처럼 노래진 애벌레가
 단잠을 깨고 우는 아이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애벌레에게 모과는 인큐베이터 같은 것
 눈 내리는 겨울밤
 어미 대신 자장가를 불러줄 유모의 품과 같은 것
 이미 쪼개버린 모과를 다시 붙여놓을 수도 없고
 이 쌀쌀한 철에 애벌레를 업듯이처럼 내다버릴 수도 없고
 내가 언제부터 이깟 애벌레 한 마리를 두고 심란해했던가
 울겨울 나는 기필코 모과차를 마시리라,
 짐짓 무심하게 아내를 바라보는데
 아직도 책장 어딘가에 심장이 멎은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놓쳐버린 아기의 태기를 놓지 못하고 있는 모과
 속을 드러낸 거죽에 검은 주근깨가 승승하다
 수술실에서 나올 때 호느끼는 내 어깨를 말없이 안아주던 너
 칼자국 지나간 몸 더 거칠어가는 줄 모르고
 비깅으로만 비깅으로만 떠돌던 날들이 있었는데
 날을 세운 불빛에 움짚거리는 애벌레처럼 허둥거리는 한때
 빈속에 쟁인 울음이 아린 향을 타고 흘러나온다

—〈모과〉 전문

좋은 시가 대개 그렇듯 이 시 역시도 시적 상황은 아주 일상적이고 단순하다. 화자는 어느 날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있는 모과를 주워왔다. 겨울에 감기도 예방할 겸 모과차를 마시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모과를 꿀에 절이기 위해 반으로 가른 순간 문제의 상황이 발생한다. 모과 속에서 애벌레 한 마리가 발견된 것이다. '문제의 상황'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리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이 상황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고 해보자. 어떻게 하겠는가? ①애벌레와

모과를 모두 버리고 다시 나가서 새 모과를 주워온다. ②애벌레만 죽여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모과는 깨끗이 씻어서 꿀에 절인다. 아마도 이 두 개의 선지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답이 있지 않을까? 설령 당신이 이 시의 화자처럼 유산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애벌레와 태아를 동일시 하며 모과 속에서 나온 애벌레 한 마리에 어쩔 줄 몰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벌레의 출현이라는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모과를 쪼갠 순간 마주하게 된 애벌레의 꿈틀거림에 대해 화자는 ‘단잠을 깨고 우는 아이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린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잠시 그 영상을 한 번 떠올려보자. ‘모과 밖으로 방출된 애벌레의 꿈틀거림=포대기 밖으로 나와 잠이 깬 아이의 두리번거림’. 이 등식은 다음의 구절 즉 ‘모과는 인큐베이터 같은 것’, ‘어미 대신 자장가를 불러줄 유모의 품과 같은 것’에 이어지면서 더욱 그럴듯한 설득력을 얻는다. 시인의 관찰력과 상상력, 그리고 표현력이 실로 놀랍지 않은가?

그런데 시인은 왜 모과를 일종의 ‘모태(母胎)로, 애벌레를 아기로 치환하고 있는 것일까? ‘아린 향’ 때문이다. 시의 후반부에서 알 수 있듯 시인,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인의 아내는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고, 아직도 그 아픔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아직도 책장 어딘가에 심장이 멎은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간직하고 있’을 정도로 아기를 낳은 것은 아내에게 잊을 수 없는 슬픔이고 아픔이며, 그것은 ‘짐짓 무심하게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시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인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을 테고, ‘짐짓’이라는 부사어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그 기민한 관찰력과 상상력 그리고 표현력에 놀라고, 시적 비유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이 시에 대한 우리의 독해는 마무리되는 것일까? 아니다, 마무리가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독해는 비로소 시작된다. 이 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구절은 다음이다.

이미 쪼개버린 모과를 다시 붙여놓을 수도 없고
 이 쨍쨍한 철에 애벌레를 업둥이처럼 내다버릴 수도 없고
 내가 언제부터 이깟 애벌레 한 마리를 두고 심란해했던가
 울겨울 나는 기필코 모과차를 마시리라,

이 구절은 화자가 보여주는 심리의 동선을 아주 잘 포착해낸다. 화자는 아마도 할 수만 있다면 모과를 다시 붙여놓고 싶었을 것이다. 그것은 애벌레를 다시 모태의 자리로, 그 편안한 삶의 처소로 돌려보내는 일이기도 하고, 화자를 유산이라는 이픈 과거의 반추로부터 방어하는 것이기도 하다. 애초에 모과에서 애벌레가 나오지 않았던들, 그 과거의 슬픔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야기 해보자면, 모과를 다시 붙여놓아 애벌레를 안온한 삶의 공간 속으로 되돌려보내는 일은, 뱃속에서 놓쳐버린 자신의 아기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하고픈 욕망에 대한 우회적인, 그러나 그야말로 애절한 표현이기도 하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쨍쨍한 철에 애벌레를 업둥이처럼 내다버릴 수도 없고’라는 구절은 이를 암시한다. 그런데 모과를 다시 붙여놓는 일, 즉 그렇게 함으로써 애벌레를, 그리고 아기를 다시금 삶의 ‘속살’로 돌려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화자는 심란하다. ‘내가 언제부터 이깟 애벌레 한 마리를 두고 심란해했던가’에서 ‘이깟’이라는 부사의 쓰임이 예사롭지 않은 울림을 갖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기서 ‘이깟’은 그 말의 통속적인 쓰임에서 그렇듯 분개의 표출이 아니다. 이 ‘이깟’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기필코’와 어울려 화자의, 그리고 화자 아내의 치유하고픈, 그러나 치유되기 힘든 아픔에 대한 일종의 ‘소리 없는 절규’다. 그러니까 참고 참고 또 참아왔던 슬픔을 두 부사어를 통해 절제된 형식 속에 은밀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아픔을 분노로 바꾸지 않고 절제된 미적 형식 속에 담아내는 가운데 동정과 연민의 에너지가 생성된다. 만일 이 아픔이 무분별한 분개로 변환되었다면 아마도 애벌레는 단칼

에 베이는 운명을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에벌레 앞에서, 그 꿈들 대는 연약한 생명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한다. 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태도야말로 어찌면 생명에 대한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외경인지도 모른다. 이 외경이 있기에 화자는 에벌레의 난처함을 읽을 수 있고, 아내의 아픔을 감지할 수 있으며, 나의 심란함 앞에 솔직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슬픔을 보듬고 그들이 다시 평온의 처소에 놓이기를 희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나면 ‘빈속에 쟁인 울음 이 아린 향을 타고 흘러나’오지만, 그 ‘아린 향’은 단순한 슬픔의 차원을 넘어, 혹은 그 슬픔의 교류를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공감(sympathy)의 미학을 발산하게 된다. 이 시를 읽고 나면 일단은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파스해져오는 것도, 나아가 그 파스함의 태도로 추위에 떠는 모든 존재들을 환대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다.1)

《나무의 수사학》에 실린 많은 좋은 시들의 경우 대체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유사한 특질들을 보여준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깃들인 슬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안녕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현실과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현실의 일부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와 부딪히며 이러저러한 애처로움들을 빚어낸다.

꽃감이 떨어지면 담가 익혀 먹곤 했다

아들 둘 먼저 보낸 뒤 감나무 잎 스적이는 뒤란에 홀로

1) 이러한 이유로 이 시는 약 칠십여 년 전에 발표된 백석의 <수라(修羅)>라는 시를 떠오르게 한다. <수라>에서 시인은 방바닥에 나타난 새끼 거미를 무심코 문 밖으로 쓸어버리는데, 이후 그 어미로 보이는 큰 거미와, 그 막내로 보이는 알에서 막 깨어난 듯한 아주 작은 거미가 연속해서 나타난다. 이에 시인은 애초에 새끼 거미를 무심히 쓸어버린 자신의 행위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며 미물들의 평화를 바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된다. 마지막 몇 구절만 옮겨보면 이렇다. “이것의 엄미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앉아 있는 외할머니

땀더뺀은 풋내 단물 들어라 소금물 향아리마다 감을 담가놓고 있다

(…중략…)

배 속 아기를 잃어버린 외손주를 위해

특,

땅을 짊고 뒹구는 감을 씹는 당신

- <감 향아리> 부분

‘특’이라는 낙과 소리는 생명의 상실처럼 들리는바, 그것은 박목월이 반세기 전에 <하관(下棺)>이라는 시에서 아우를 먼저 보낸 심정을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특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이라고 갈무리 한 것을 떠오르게도 한다. 그런데 <감 향아리>에서의 ‘특’이라는 낙과 소리는 그것을 씹는 할머니의 행위를 통해 새로운 반전을 맞게 된다. 즉 그것은 자식을 먼저 보낸 두 존재가 느끼는 공통의 아픔의 연결이며, 그 상처의 보듬음이라는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면의 제약으로 자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이 외에도 온기를 자아내는 몇몇 구절들을 간략히 인용해 보기로 한다. 먼저 서로 담을 쌓고-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사는 이웃의 담 너머로 감나무의 가지를 뺨뺨 들이미는 화자의 마음씨를 본다. 참으로 온화하기 그지없다.

칼금을 그어놓은 책상 너머로 생일이라고

사탕을 슬그머니 얹어놓고

시름을 뚝 베고 앉아 있던 초등학교 때 내 짝 정이처럼

꼭 것처럼은,

담벼락 옆에 감나무 한 주 심어놓기로 한다

이것 좀 자시라 차마 말은 못 하고 슬며시

담 넘어간 가지에 눈치껏 익어갈 홍시를 기다려보기로 한다

—<온유> 부분

시인은 또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참하고 누추한 삶의 모습들을 따스한 마음으로 어루만지기도 한다. ‘벗나무의 괴로움을 알겠다/ 꽃 피는 벗나무의 괴로움을 나는/ 부끄러움 때문이라 생각한다// (...중략...)// 계단 계단 누운 벚꽃을 밟고 오르며 나는 인어를 생각한다/ 떨어지지 않는 철거민 생각 대신/ 벚꽃 아래 사진을 찍던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무의 수사학 3>이라는 시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동시대의 쓰라린 삶의 현장에도 무심하지 않음을, 벚꽃의 화사함 속에서도 윤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해 부끄러움을 떠올리는 화자의 곡진한 마음을 읽는다. 또 <나무의 수사학 6>이라는 시에서 공원 청소부 아주머니를 보고 ‘형클어진 머리카락으로 하늘을 쓸고 왔나/ 씨구려 파마기에 빠져간간 울을’하며 유머러스하게 그 생의 간난신고를 묘사하는 끝에 해진 양말 밖으로 보이는 갈라 터진 뒤통치에 ‘바셀린 로션이라도 발라줘야 하는데’와 같이 능청을 떨며 말할 때, 우리는 그 능청에서조차 따뜻함을 느끼며, 이 시인에게, 또 그 시인이 그리고 있는 삶과 존재들에게 공명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손택수의 시들은 따뜻하다. 그리고 그 따스함은 단순히 상투적 휴머니즘에 머물지 않는다. 그의 시들이 보여주는 공감의 미학은 시혜적 태도나 엘리트주의적 사고로부터 촉발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약자의 원한이나 이성적 사유의 험거움과 모종의 협약을 맺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는 그저 ‘어딘가로 번지기 위해선 색을 호텔 줄 알아야 한다’(<수채>)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투박하게 넘치는 존재’(사르트르)들인 우리들에게 그 넘침의 독선과 아집을 비우지 않고는 타자와의 윤리적 대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일러준다. 그래서 그의 시를 읽고 나면 에벌레를, 청소부 아주머니를 그저 무심한 눈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게 되고, 화사하게 내리는 꽃비 속에서도 폭우로 고통 받는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윤리다. 그리고 시란, 문학이란 이러한 사랑과 윤리의 공경 위에

타인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다. 모두가 쿨룩거리나 아무도 감기에는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요즘, 따뜻한 한 잔의 모과차를 두고 손택수의 <모과>를 읽자.